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부터 민수기를 읽기 시작합니다. 민수기는 모세오경 중에서 네 번째 책으로 민수기의 원래 히브리어 제목은 '베미드바르'라고 하는데 이것은 '광야에서'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말 제목 민수기(民數記)는 말 그대로 '백성들의 숫자를 세다'라는 의미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조사를 두 번하게 되는 것 때문에 붙여진 제목입니다.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인 40장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온 후에 1년이 지나고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완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레위기를 지나 이제 민수기 1:1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 민수기의 시작은 애굽을 떠난 지 1년 1개월, 성막을 세운지 1달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면 애굽을 떠나온 후 1년 1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실 곳 성막을 완성하였고 하나님의 법궤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셨고 아론과 그 자손들을 제사장들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그 일을 모두 마치고 난 후,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계수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 진 것을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을 땅의 티끌 같이(창13:16) 하늘의 별과 같이(창15:5)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창22:17) 많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내려갈 때 이끌고 간 7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큰 민족을 이루었고 이제 애굽을 떠나 광야에서 그 자손들의 수를 세어보니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으로 살면서도 그 민족이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출1:7, 신1:10).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고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이 광야 한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랜 세월 후에 솔로몬 시대 때의 말씀을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 같이 많게 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왕상4:20). 그러나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이 약속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로 불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세대와 인종과 장소를 초월하여 하늘의 허다한 별과 같이,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수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히11:12, 12:1). 그리고 그 수 많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이 마지막 날, 천상에서 있게 될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며 그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찬양할 것입니다(계19:1, 6).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계수한다는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계수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전체 인구가 아닌 "이스라엘 중 이십 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민1:3). 바로 전쟁에 나갈 만한 군대를 계수하라는 말씀입니다. 각 지파 별로 지휘관들을 세우서 진영을 이루고 군기를 들고 회막을 중심으로 대오를 맞추어 진을 치기도 하며 행진을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군사는 그 명령권자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간다는 의미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민수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민1:1, 2:34 참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사탄 마귀와 싸움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즉 사탄 마귀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여 싸우는 것입니다(엡6:12).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무기로 무장한다는 의미입니다. 세상 군대는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개발하고 그것으로 무장하지만 하나님의 군대는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무기로 무장합니다. 하나님의 무기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요(고후10:4) 하나님의 말씀입니다(엡6:17, 히4:12).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계수한다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장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제사장의 의무는 성막과 그 기구들을 돌보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제사장은 정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레위 자손들을 택하여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대신하여 하나님께로 돌려 드렸으며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멸하실 때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살려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결하고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출19:6). 그리고 이제는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벧전2:9). 우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전에는 저주 아래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 된 것입니다(벧전2:10). 성도들이 거룩한 백성이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수에 들어가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혀 사는 육신적인 삶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위해 준비해두신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있는 것을 믿으며 사는 영적인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는 그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인생은 오직 잠시 지나가는 광야뿐임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